

한화, 폴란드 합작·영국시장 진출… 유럽 방산 공략 본격화

폴란드서 현지 생산·정비 등 강화
영국 DSEI서 K9·천무·MCS 전시
NATO 총측 MCS, 연합군 운용 확대
수출 넘어 현지 고용·산업 협력 강화

국내 방산업계 ‘만형’ 한화그룹이 유럽 무대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 폴란드에서 천무 현지생산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영국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DSEI)까지 연속으로 진출하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이달 초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 WB그룹과 천무(호마르-K)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지분 구조는 한화가 51%, WB그룹이 49%를 보유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작법인은 폴란드 수출형 천무 유도탄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탄종



영국 런던에서 오는 12일 진행되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 DSEI에 참가한 한화 전시관에 K9 자주포, 천무 유도탄, 모돌화 장약(MCS) 등 유럽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한화

(CGR-080)을 우선 생산하며, 생산물량은 폴란드군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탄종 다변화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 산하 조선소와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협약을 맺었다. 한화시스템은 레이더·전

자전 솔루션을 전시하며 전장 네트워크 기술력을 알렸다.

단순 전시를 넘어 실질 계약까지 이끌어낸 점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란 평가다.

한화그룹은 폴란드에 만족하지 않고 서유럽 영국까지 확장에 나섰다.

지난 9일 개막한 영국 런던 DSEI 2025에서 한화 방산 3사(에어로스페이스·시스템·오션)는 통합 부스를 꾸렸다. 이번 전시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돌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NATO 회원국 6개국에서 운용 중인 K9은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입증된 체계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단순 홍보가 아니라 현지 생산·정비 파트너십까지 병행해 유럽 내 장기적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상황에서 천무는 유럽의 화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MCS 역시 사거리 확장과 화력 효율화는 물론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장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연합군 운용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활용이 가

능하다.

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및 정비를 포함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공급망 강화, 고용 창출,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폴란드에서 계약을 따내고, 영국에서 존재감을 키운 연속 행보는 한화가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전선 선봉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유럽 무대를 계기로 현지 정비(MRO)·기술 협력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 현지와의 장기적 동맹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폴란드 계약은 시작일 뿐, 영국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구도”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 “유럽의 방산 고객들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자국 산업 기반과 전력 유지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며 “한화는 검증된 무기 체계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유럽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대명소노, 티웨이 인수 후 리브랜딩… ‘트리니티 항공’ 출범

리조트·골프·항공 결합 여행상품 추진
티웨이 상반기 적자, LCC 업황 악화 우려
안전투자·증자로 산적 과제 해소 나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명을 ‘트리니티 항공’으로 바꾼다. 항공·숙박·여행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면 리브랜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내부에 리브랜딩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BI)·기체 도색·서비스 정체성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구체적 결과물은 아직 공유되지 않았지만 관광 전반을 아우르는 토틸 플랫폼 항공사로 도약



항공기 리버리 이미지. /티웨이항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리니티(TRINITY)’는 라틴어 Trinitas에서 유래했으며 ‘셋이 하나로 완전함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항공·

숙박·여행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번 사명 변경은 서 회장이 지난 2월 약 2500억 원을 들여 티웨이홀딩스 지분 전량(46.26%)을 인수하며 본격화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바 있다. 14년 만에 인수에 성공하며 임직원 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항공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준비를 마쳤다.

실제 지난 7월 대명소노는 티웨이항공과 함께 제주행 항공편과 소노캄 제주·소노벨 제주 숙박, 조식 뷔페, 사우나 무료 입장 등을 묶은 ‘항공+호텔’ 결합 상품을 선보였다. 업계는 “OTA(온라인 여행사)

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유통망을 활용하면 마진율 개선과 고객 충성도 제고가 가능하”고 평가했다.

다만 티웨이항공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26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9억 원 흑자와 대비되는 수치다. 장거리 노선 확대·일본 노선 수요 둔화·LCC 공급 경쟁 심화와 운임 하락 등으로 업황이 침체된 영향이다. 소노 관계자는 “인수 후 자본잠식 상태임을 확인하고 최근 자본을 확충했으며, 연말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흑자 전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모회사 소노인터내셔널의 기업공개(IPO) 예비심사 청구도 연기됐다. 부채비율 612%인 소노인터내셔널

은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했었다. 회사 측은 “상장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계는 티웨이 실적 개선 속도와 대외 환경이 IPO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회장은 LCC 업황 침체, 티웨이항공 적자, IPO 지연 등 과제를 ▲항공 안전 및 정비 투자 확대 ▲유상증자 등으로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다.

소노 관계자는 “해외 호텔과 골프장과 티웨이항공 노선을 결합하면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회원 수십만 명을 연계해 혜택을 늘린다면 충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1000개 기업 뭉쳤다… ‘제조 AX’로 2030년 100조 부가가치

산업부, 내년 AI예산 1조1347억 투입
올해 대비 두 배 확대… 대규모 지원
김정관 “제조 AX 1등 국가 도약”

국내 제조업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손잡고 ‘제조 AX(Manufacturing AX, M.AX)’ 시대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1000여개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제조강국 코리아의 체질을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조 데이터가 기업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AI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도 더뎠다. 일부 기업은 해외 AI 기업과 협업을 모색해왔다. 정부와 산업계는 업종별 대표 제조사와 AI 기업, 소재·부품사가 함께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M.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업종별 대기업과 AI 전문기업, 소재·부품사,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 공유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대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협력해 2030년까지 500개 AI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하고, 업종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산업단지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또 AI 제조서비스는 설계·디자인·공급망까지 AI를 확산해 제조업 AI 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산업융합 표준 54종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AI 예산을 올해(5651억 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GPU·데이터센터·실증공간 같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와 표준 마련을 위한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업무특성 반영 못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간담회 개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필요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현행 주 52시간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토로하면서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현재 주 52시간제는 업계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

&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란 중소기업 전문직 근무자 가운데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김승호 기자 bada@